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채소 판매대에 봄동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남해안 지역에서 납작배추, 납작배추, 딱갈배추, 딱배추라 부르던 납작데한 모양의 봄동은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배추 앞에 붙은 접두어들은 땅바닥에 납작 붙어 자란 모양을 일컫는 것이다. 제주의 시골 동네에서 퍼대기나물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도시인들이 맛보는 봄동은 전라남도 완도와 진도, 해남과 신안에서 자란 것들이다. 이 지역의 봄동이 전국 생산량의 9할 이상을 차지한다. 90년대에 진도에서 처음 봄동의 상업적

봄동배춧국

재배가 시작했다. 그로 인해 '진도 봄동'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다른 지역의 봄동도 '진도'라는 이름이 붙은 상자에 담겨 시장으로 나온다.

봄동이라는 말의 유래를 알 수 없어 호사가들이 지어낸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추려본다. 먼저 소풍설이다. 봄이 오는 들녘 마른 소똥처럼 땅바닥에 납작데하게 자란 푸성귀이니 그렇다는 말인데 먹거리를 두고 똥이라 부르기에 똥에서 봄동이라 했단다. 그러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라며 발음을 봄-똥이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봄(春) 뒤에 겨울(冬)을 이어붙이니 봄동이란단다. 겨우내 노숙으로 한뼘잠을 자며 바람찬 들에서도 푸르름으로 견뎌낸 나물이란 뜻이다. 그래서 황산순의 시 '봄동야, 봄동야'는 인동(忍冬)의 당당함에 반하여 봄동과 더불어 밤 한 공기를 똑똑 해치웠음을 자랑한다.

추운 겨울에 맛보는 봄동은 단맛이 제격이라, 송기숙의 소설 '녹두 장군'에는 이런 대화도 있다. "그냥 먹어라. 봄동 맛이 꿀맛일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한 농한기 겨울철, 아버지가 동네 똥추림에서 목살이라도 차지하고 큰기침하시며 이문간을 들어오는 날엔 어머니는 우영팟에서 퍼대기나물을 뜯어다 고기 삶은 육수에 베지근하게 똥고기 나물국을 끓였다. 이런 날은 정말 지겨진 밥상이었다. 지금은 먹는 걸 쉽사리 여기지만, 그때는 집마다 늘 입각정이었다. 그래서 최보라리 해설 선생은 "만사를 안다는 건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느니라."고 하였다.

육지에서는 봄동배추로 국을 끓이면 보통 멸치육수로 된장국을 끓인다. 옛날 개성에는 이성계를 원망하느라 돼지고기를 끓여 만든 성계탕이 있었다는데, 부산 명물 돼지국밥이라

면 모를까 똥고기 봄동배춧국하고는 사연이 닿지 않는다. 어찌 됐든 똥고기 봄동배춧국은 타향이라 서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 밥상 음식, 소위 소울푸드다. 식탁에 오른 따뜻한 똥고기 봄동배춧국 국사발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한 손갈 입안에 담으니 베지근한 맛이 온몸에 가득 퍼진다. 음식남녀란 말이 있지 않음! 성음과 더불어 식욕은 원초적 본성이란 말인즉, 미각에서 오는 행복감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렷다.

제주의 봄다 것들이 사라져가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간다. 어쩌다가 보는 제주섬은 풍경만이 낯설어가는 게 아니다. 말본새도 그렇고, 제고장 음식이라 내놓은 국반찬도 제본색이 많이 어워졌다. 판대의 투정이라고 무엇이랴만 아쉬운 걸 어쩌랴! 아차, 봄동국이 식었다.

사설

도의회 업무보고, 개발소 파업 해결 계기로

제주도의회가 파업 열흘을 훌쩍 넘긴 제주개발공사 노사분쟁과 관련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개발공사 파업사태와 관련 김성연 정무부지사와 노사양측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업무보고를 받았고, 도의회의 특별업무보고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노사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접에서 바람직합니다.

도내 최대 공공기업인 개발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오늘로 1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삼다수 생산 중단과 가공용 감귤 처리난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어워졌다. 판대의 투정이라고 무엇이랴만 아쉬운 걸 어쩌랴! 아차, 봄동국이 식었다.

특히 제주도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는 파업 초기부터

어디까지나 노사간의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기관인 제주도가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파업사태가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는데에는 일정부분 제주도의 책임도 큼니다. 산하 공공기업 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로서는 파업사태 해결에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측을 포함해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조도 강경일변도의 투쟁보다는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도민을 불모로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부 아니면 전부' 식의 극단적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의회 특별업무보고를 계기로 파업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지하수 위협하는 개인하수시설 문제다

제주의 지하수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원 때문에 지하수가 전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와 화학비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하수에 직격탄을 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 7일 발표한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집니다.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400개소에 이릅니다.

연구진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밀집된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의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0개소 가운데 7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속박시설 4개소의 경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으며, 부유물질(SS)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도민의 생명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하수가 각종 오염원에 노출돼 있어 큰 일입니다. 이번 제주연구원 조사도 이렇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밝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에서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7년간 개인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785개소 중 202개소(25.7%)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상당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방류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개인오수처리시설부터 당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위라벨 지수로 본 제주



박소정 편집부 기자 cosorong@halla.com

아직도 멀고 멀었다. 지난 연말 정부가 내놓은 '위라벨 지수'를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위라벨 지수'에서 제주가 최하위권에 속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에 따르면 제주는 100점 만점에 47.5점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다. 가장 끝에 있는 경남(44.7점)과 함께 최하위 그룹이었다. 반면 부산은 57.5점으로 1년 전 전국 1위였던 서울(57.1점)과 순위를 뒤바꿨다. 딱딱한 우리네의 삶을 다시 들춰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해졌다.

일·생활균형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남성 가사노동 비중,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육아휴직 사용 현황,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등으로 구성된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실태조사해 2023년 추정치를 100점 만점으로 잡아 매년 도달할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모든 지역이 일·생활균형 지수를 처음 조사했던 2017년보다 지수가 올라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라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 역시 37.1점에 그쳤던 2017년에 비해 10.4점이 올라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50.1점)에 못미친 전년도보다 여덟달간 아래로 내려간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제주에서도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각각 아쉬운 따름이다. 올해의 끝자락에는 제주의 일과 생활 균형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다음 조사결과가 사뭇 궁금해진다.

뉴스-in

강창일 의원·윤호중 총선거획단장의 만남

총선 출마여부 여전히 관심

○...오는 12일 의정보고회에서 21대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선거획단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강 의원은 8일 현재까지도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당 총선 전략을 담당하는 윤 단장과도 의견을 교환.

당 사무총장인 윤 단장은 지난해 11월 당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거획단 단장으로 임명. 부미현기자

우당도서관 구내식당 새단장

○...우당도서관이 구내식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올해부터 운영을 개시해 눈길.

구내식당은 준공 후 34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돼 기존 구내식당을 철거한 후 지난 6월부터 증축공사에 착공해 지난해 12월말 공사를 완료.

우당도서관 관계자는 "증축된 구내식당 2층은 상반기 내로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도서관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소통하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서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제1기 주민자치대학 운영

○...서귀포시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제1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수강생 40명을 모집.

2월 26일 개강해 1년 과정, 20강좌로 운영될 주민자치대학은 자치분권, 주민자치 국내외 사례 등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분임토론 등 참여교육으로 운영될 예정.

시 관계자는 "분임활동을 통한 지역현안 사례와 해결방안을 발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활아버지 사별 최공 순권(요셉·향년 9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 오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월 9일
손자 최봉환(아내) 손부 최은정(아내)
딸 최성희(아내) 시어 고창근(아내)
영희(아내) 전태복
옥희(아내) 박상은(아내)
윤심(아내) 김동기(고모님)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천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전세 렌터카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렌카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용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차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텔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제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충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신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